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후속조치 이행하라!

이윤보다 생명을! HIV/AIDS 감염인 다죽이는 인도특허법 철회하라!

미국은 이라크를 떠나라! 파병 한국군 철수하라!



광고 '반전을 위한 커밍아웃'에 함께해요!!

>> 왜 '반전을 위한 커밍아웃' 이냐구요?

2년 전 미국 부시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전후해서 60여명에 가까운 동성애자들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며 거리로 나와 레인 보우 깃발아래 모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 스스로 집단적으로 동성애자로서의 존재를 긍정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른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하던 다양한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의 존재와 권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많은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부시는 언론 통제와 야간 통행금지 속에서 여전히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에서는 부시 정권으로 향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동성애자 결혼에 대한 전면반대와 같은 보수주의적인 목소리로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거리에서 우리 자신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전쟁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반전을 위한 커밍아웃' 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여기서의 '커밍아웃' 은 바로 동성애자 개개인의 커밍아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개인으로서 커밍아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커밍아웃' 은 우리 자신의 자긍심을 '집단적' 으로 드러낸다는 사회적인 의미의 커밍아웃입니다.)

>> 이런 분들~ 함께 해요!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누구나 환영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 젠더, 그리고 동성애자 권리를 지지하는 이성애자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반전을 위한 커밍아웃' 에 함께 하시면 전쟁에 반대하는 성소수자들을 만나 세상속의 우리들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토론회나 캠페인 및 집회 참가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정기적인 만남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며 매월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lgbtnowar@hanmail.net,

연락처: 010_6809_0307(단영)

<http://cafe.daum.net/LGBTnowar>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1년, 이제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 속으로 뛰어들 차례

이경_동성애자인권연대 조직담당

청소년보호법 상 동성애자차별조항이 삭제된 지 1년이 지났다. 2000년부터 4년간 줄창 이어져온 이 투쟁은 한국 동성애자 운동이 정취한 소중한 승리였다. 이 조항이 삭제가 많은 변화를 불러오리라 예상했지만, 1년간 전개된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않다. 여전히 동성애에 관련된 정보는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접근금지목록에 올라있다.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은 여전히 낮다. 학교 안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지위 때문에 더 큰 억압과 차별의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차별조항의 삭제는 '동성애=음란하고 유해한 행위'라는 이 사회의 오랜 낙인을 떨치는데 중요한 시작이다. 그러나 차별적인 법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로 차별철폐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조항의 삭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불러왔는지 되돌아보고자 한다. 중요하게는 이 법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청소년동성애자들의 삶은 어떤가, 꼭 되짚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이 운동이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현실에 파고들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더 깊고, 넓은 운동으로 지속되기를 희망한다.



청소년 동성애자들과의 인터뷰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훨씬 힘겹고 무겁다. A와 B는 서울 소재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된 17세의 청소년이며 레즈비언이다. 아들을 만나 학교 안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의 생활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준 두 명의 레즈비언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의 신상은 아웃팅을 우려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Q. 학교나 집에서 정체성이 알려지게 된 경험 이 있나요? 주변에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알려지게 되었다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A- 아이들이 레즈비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로 터프하게 행동하거나 머리가 짧거나 귀를 많이 뚫은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일반(이성애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탈반(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정체성을 바꾸는 것)하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 고도 해요. 몇몇은 애인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할 정도로 개방적인 친구들도 있구요.

B- 외모로 아이들이 알아보죠. 어떤 아이들은 레즈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친하면 진심으로 얘기해주는데, 안 친하면 얘기 안 해요. 아웃팅 될까 봐요. 중1때, 같은 학교 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그때 사귀던 애가 사람들 눈에 띄게 일부러 스킨십도 강하게 하고 그런 애였어요. 그 때 애들이 뒤에서 욕도 하고, 어

깨동무하거나 손잡고 다니는 것만 봐도 욕하고 그랬어요. 중2때는 친오빠가 집에다가 저를 아웃팅 시켰어요. 그때 부모님께서는 얼버무렸어요. 이후에 엄마가 애인이랑 주고받은 편지를 보시고, 많이 화내셨죠. 그 때 학교 담임선생님은 저에게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아는 이반친구는 선생님한테 함도 맞고 학교에서 징계당한 적도 있어요.

Q. 학교에서 주변 친구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직접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어도 좋아요.

A- 싫어하는 애들은 대놓고 "더럽다"거나 "징그럽다"고 하고, 때로는 집단적으로 이반들을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해요. 좀 이해하는 애들은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거니까"라며 이해하고, "팬픽 이반 아니면 팬픽은데 팬픽 이면 빨리 빠져나오라"는 얘기도 하죠. 선생님들과는 트러블이 많아요. 일단 외모적으로 뛰는 애들 머리를 자르는 등 문제가 많죠.

B- 우리 학교는 좀 더 보수적이었어요. '탈반'한 애들이 오히려 다른 이반들 아웃팅 시키고, 동성애를 섹스행위 같은 거만 부각시켜서 혐오스럽게 얘기하죠. 남자가 좋아졌다고 자랑하면서, 지금 이반들도 어차피 탈반 할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는 후배가 "언니, 이제 정상으로 돌아 온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럼 비정상이라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났었고 이해 못 받는다는 생각도 들구요. 가장 힘들었던 적은, 매점에 갈 때 뒤에서 선배들이 욕할

때였어요. "몸 달겠다, 더러워" 이런 얘기를 그냥 하죠.

Q. 교사들이 학교에서 레즈비언들에게 어떻게 대하나요?

A- 머리 짧고 레즈로 보이는 애들을 불러서 혼내요. 주로 "자꾸 이러면 전학시키겠다, 자퇴해라" "여자애들끼리 하면 좋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너 네 언제까지 이럴거냐?"사귀는 애들한테는 "니 네 아직 안 깨졌냐?"라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B- 학생들 앞에서 동성섹스장면 묘사한 소설 썰어서 신음소리 내는 것까지 다 읽어서 수치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하여간 학교에서는 이반들을 못 잡아서 안달을 하죠.

Q.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떻게 받아보았나요?

A- 대부분은 그냥 학교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하는데요. 자위행위나 섹스 같은 거 하면 안 좋다는 거죠 뭐. 애 낳으면 누가 키울 거냐, 등등. 그래도 주변에 원조교제 하는 애들도 여전히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하는 거죠.

B- 저는 동성 간의 관계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얘기해주는 선생님한테 성교육 받은 적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Q. 여러분의 정보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밝혀져서 피해 입었던 경험이 있나요?

A- 집을 나와 우리 집에서 잠시 지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부모님들이 경찰서에서 딸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해서, 새벽2시에 저희 집에 와서 잡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집도 발각 뒤집혔었죠.

B- 2학년 때 담임이 저와 제가 사귀었던 친구를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인터넷의 일기나라라는 사이트에서 커플일기를 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제 정보를 해킹해서 그 친구와 쓰던 일기를 복사해서 그것을 부모님 만나서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엄마가 학교 오셔서 “다시는 아이가 레즈라는 얘기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각서도 썼어요. 저

는 집에서 3달 동안 외출금지 당했고요.

Q. 청소년보호법 상에 있는 동성애차별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인터넷검색하면서 동성애자사이트 찾기가 좀 쉬워졌나요?

A- 전혀요, 여전히 '다음' 같은 사이트들은 '이반' 검색이 안되요. 그러니까 애들이 '2번'이나 '동성' 이런 걸로 검색하고 그래요. 최근에는 저희끼리 부르는 말로 이반을 '핑'이라고도 하고요. 다른 사이트들도 동성애가 성인만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Q. 언론의 청소년 동성애자들에 대한 보도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B-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편파이반 어쩌고 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거 저희끼리 돌려보면서 딱 욕했어요. 신공(공원, 청소년 이반들이 많이 가는 장소라고 알려져 있음) 찍어간 거 봤거든요. 제 친구들도 그 때 인터뷰했었는데, 중요한 내용은 다 잘라 먹고...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좋아서 사귀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TV에서는 선정적인 내용만 골라서 나오더라고요. 성에 미친 애들, 성관계만 좋아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언론을 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많은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가출을 하고 학교를 자퇴한다.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정체성과 삶의 방식은 이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비행청소년'의 그

것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탐색할 능력도 없는 '불완전한 인간'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동성애자들은 몇 겹의 억압 속에 있다. 하지만 정말 잘못된 것은 '이성애'만을 옳바르다고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다.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모든 청소년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에만 매달려야 줄서기를 잘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입시제도이다.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가능성과 반짝반짝하는 다양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사회이다. 청소년보호법 상 동성애자 차별조항 삭제 1년, 이제 우리 운동은 청소년 동성애자의 삶 속으로 뛰어들 차례이다.

LGBT paper

접근을 금지 당한 채 난자당한 단어들 _규제와 억압의 '금칙어'지정을 보고

권_동성애자인권연대 편집담당

만약 당신이 청소년이고 '섹스, 콘돔'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 검색'을 하고자 한다. 만약 당신이 청소년이고 성적체성의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며 혼란스러워하다 검색창에 차마 동성애라고 입력하지 못하고 그나마 조심스런 단어인 '이반'을 입력했다고 하자.

“이 정보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의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혹은 “클릭검색 : 19세 미만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를 제외했습니다.” 하는 문구와 함께 성인 인증절차를 거치기 위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온다.

성인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정보, 청소년인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 '섹스, 콘돔'은 이미 사전적 의미를 잃어 청소년의 손에 닿지 못하게 규제와 금지의 단어가 되어 버렸고 성 정체성의 다양한 고민은 청소년이기에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유해 정보란 꼬리

표로 인해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는 '섹스, 이반, 젓, 콘돔, 변태 등'을 포함한 인터넷 검색 포털 업체들의 금칙어 단어 600여개의 단어와 신조어 115개를 더해 성(性)과 관련된 것이나, 욕설, 비속어를 포함하고 이를 '금칙어'로 정하고 인터넷 포털 업체에 전달하였다. 이미 인터넷 포털 업체들은 자체 금칙어를 정해놓고 있었으나, 준 행정기구의 성격을 띤 정통윤의 입장을 발판삼아 이 기준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과연, '섹스, 콘돔'이란 단어가 청소년을 성숙과 비성숙의 기준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단 말인가? '젓'이란 단어가 19세를 기준으로 나이 차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이반'이란 단어는 청소년의 손에 닿지 못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할 단어인가?

책상 머리맡에 앉아 사회를 고민한다는 기독교와 '미성숙'한 어문들은 인터넷 공간에서도 청소년을 사회 윤리와 도덕이란 잣대를

들이대며 억압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청소년 자신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접치며 시도하는 시기이다.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의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시기임에 불구하고 이미 인터넷 공간에서는 온갖 금규증을 '성숙'과 '미성숙'의 기준으로 차단해 버렸다. 그렇다면 성적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동성애자들은 과연 어떠할까?

고민을 알아볼 기회를 차단당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은 '틀리다'의 판단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닌가? 다양한 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19세 딱지를 댄 이후부터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것이며 '찾지 못하는 성'은 '변태'로 낙인찍힐 것이고, '차별'을 받아 마땅한 것으로 인식 될 것이다.

작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상 동성애자차별조항 삭제 투쟁에서 보여준 성과와 힘을 삭제 이후의 발빠른 대처와 후속조치로 이어가지 못한 것은 동성애자운동진영의 숙제이다. 이 숙제를 푸는 길만이

진정 청소년 동성애자의 '성 정체성 자기결정권'을 청소년 자신의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아닐까?

월요일 저녁 어린이들이 나와 한 단어를 설명하면 패널들이 맞추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은 '대단해요!'란 탄성을 지르게 된다. 관성적으로 우리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며, 그 단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이해되고 해석되는지를 어린이들의 표현을 통해 배우게 된다. 과연,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맞이했을 때, 기독교와 관료들의 '대단한' '규제와 통제'란 굴레에 허덕이게 될 것은 변할 것이고, 자신의 미래와 정체성의 고민들은 '금칙어'와 함께 갇힌 채 살아갈 것이다. 자신이 선택할 기회를 박탈 당한 채 말이다.

금칙어란 틀레 안에 갇힌 단어들... 기독교와 관료들의 '미성숙한' 해석에 난자당한 그 단어들... 그들의 조악한 판단에 인터넷 공간이 더러워지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 또 한번 거대한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LGBT paper

동성애자들은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영국] 성소수자 역사의 달

번역 _ 나라 (동성애자인권연대 국제자로 번역 담당)

오늘날에도 성소수자들은 배척받고 있으며, 공격과 살인의 희생양이 되기도 한다. 영국의 학교에서도 반 동성애 공격이 빈번하고 있다. 영국의 성소수자 단체들은 2005년부터 2월을 첫 성소수자 역사의 달로 선언하고 성소수자들의 역사를 배우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고 2월 한 달 동안 영국과 북아일랜드 전역에서 100개 이상의 행사와 전시회가 열렸다. 아래는 교육 관련 성소수자 단체인 '스쿨 아웃'의 폴 패트릭이 '동성애자 역사의 달'의 중요성을 주장한 글이다.

몇 년 전 나는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교사로서 한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1살짜리 남아아가 나에게 반 동성애적 육체 공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학교가 해결했는데, 그 아이는 정학을 당했고 부모는 학교로 불려와 주의를 받았다. 나는 그로 인해 가슴앓이를 해야 했다. 어떻게 한 아이가, 아주 좋은 학교에 5년 동안 다닌 아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됐을까? 징계가 아니라 그가 자기 행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어떤 답도 찾을 수 없었다. 성소수자(LGBT) 역사의 달' 바로 전 날,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이 학교 내 반동성애 공격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내가 부의장으로 있는 '스쿨 아웃(Schools Out)' 은 '모두를 위한 교육' 이 벌이는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반동성애 공격이 유행처럼 벌어지고 있다. 그런 공격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 심각성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학교는 모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들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 누구든 그가 성소수자거나, 다른 사람들이 성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정체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가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혼란 일이다. 최근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북아일랜드

에서는 젊은 성소수자들의 처지가 1980년대 초 이래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성소수자 젊은이들과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들의 자살 기도와 감행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배나 높고, 학교생활에서 뒤지거나 일찍 학교를 떠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으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괴롭힘 당할 가능성도 더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반동성애 공격이 일어났을 때 단지 그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학교들이 다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만 말이다.

학교는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

성소수자는 그들의 실제 삶을 사회와 서로에게 감춰왔다. 이 때문에 권력은 우리의 인간성을 말살하고 우리를 악마처럼 만들 자유를 제약 없이 누려왔다. 모든 반동성애 공격의 근원은 바로 이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성소수자들이 그들의 삶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되찾는 것이다. 평등에 있어서 이런 진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이런 솔직함에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조롱당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공격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최근 제정된 법은 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부랑자가 되고 살해당한다. 만약 의심이 든다면, 동성 친구 한 명을 골라서 손을 잡고 극소수 동성애자 용인 지역이 아닌 곳에서 돌아다녀 보라. 특히 당신이 남성이라면 곧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성에게 더 관용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더 큰 자유의 증거라기 보단 여성의 성(sexuality)을 진지하지 않게 생각하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가시성(드러내기)이 항상 개인적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항상 목숨을 걸 필요는 없는 것이다.(However, this visibility does not always have to be personal. We do not always have to put ourselves on the line.)

'스쿨 아웃' 은 학교, 대학, 도서관, 미술관, 극장, 지역센터 등에서 당시 우리가 감추기로 했던 과거의 일

부를 발견하도록 '성소수자 역사의 달' 을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가 생존했던 방식, 우리의 기쁨과 슬픔, 승리와 패배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인간의 얼굴을, 일련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언젠가 "세익스피어가 게이였다는 걸 어떻게 알죠?" 또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어떤 여자를 좋아했죠?" 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성적 문제로만 축소할 때 내가 느끼는 절망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레즈비언 역사가인 비키 I. 이클로(Vicki I. Eaklor)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과 희망을 다뤄온 방식, 소속감을 얻는 방식, 앞에 놓인 시간을 계획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것은 아젠다를 가진 역사일까? 물론, 지식은 항상 누군가의 아젠다에 봉사하고 너무 오랫동안 그것은 소수의 권력자들,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봉사해 왔다. 이제 사람들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를 본다. 단지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일부가 되는 법을 배우자. 역사는 존재한다. 역사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성소수자 역사의 달'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성소수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다시는 학교 교육과정과 세계에서 동성애가 은폐되지 않도록, 역사책 속에 우리의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기로 결심한다. 그것이 바로 반동성애 공격과 다른 모든 형태의 억압을 종식시키는 길이다.

'성소수자 역사의 달'의 창설자들은 영국에서 10월에 있는 '흑인 역사의 달'의 창설자들에게 빚을 졌다.

성소수자 역사의 달 웹사이트
www.lgbthistorymonth.org.uk

2005 START! 성소수자 인권 상담센터 개소를 앞두고

을 _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총 준비담당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관대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과정에서부터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나는 왜 남과 다르나? 나는 왜 정상이 아닌가? 라는 식의 물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체제 안에서는 자긍심_pride이 아닌 부끄러움, 낙인, 차별로 되돌아오고 있다.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성소수자들은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으며 구제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을 내밀기도 전에 결국 포기해야만 한다.

반면, 상담의 범위는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자신이 성소수자인가? 아닌가? 식의 정체성에 대해 문의하는 상담이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가벼운 성관련 질문과 정보를 얻고자 하는 상담에서 협박과 폭력, 자살, 기혼 성소수자 문제, 가족? 친구들

의 상담, AIDS, 정신건강, 부당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 등 유형별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얹혀 있는 상담들이 대부분이다. 때로 법률, 의료지원이 절실한 상담과 위기의 순간에 개입해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로 하는 상담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성소수자들이 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이거니와 상담을 원하는 이들을 담당할 상담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 운영 아래의 상담소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들은 성소수자 내담자가 원하는 상담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성소수자 인권 상담센터의 결음이 미미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상담센터는 그 시작을 성소수자 내담자에게 대강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 함께 해결방

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그룹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연결망이 되어준다는 원칙 아래 성소수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 또한 단지 상담이 내담자-상담자 간의 1:1 관계로만 끝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성소수자들의 구체적 차별의 현실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2005년 성소수자 인권 상담센터의 활동을 기대하길 바란다. 또 상담센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환영한다.

ps.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성소수자 인권 상담센터 공식 홈페이지 lgbtpride.or.kr 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LGBT paper

상담을 통해 본 성소수자들의 현실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둔 이들의 고통은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윤 _ 성소수자인권상담센터 총 준비담당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사회가 짊어주어야 할 많은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노동력 재생산, 육아와 교육, 의료비 지원, 결혼비용, 노동 후 쉼 수 있는 공간, 노후의 삶 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 모든 비용은 가족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다. 그만큼 지금의 가족제도는 체제를 유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며 이는 동성애자를 억압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삶에 자긍심을 느끼고 사는 성소수자라 할지라도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용기는 쉽게 발현되지 않는다. 가족 안에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성소수자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이 공개될 경우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 불효자로 낙인 찍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다. 필자 역시 군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있을 때 군의관에 의한 강제적인 Outing (: 동의없이 자신의 정체성이 밝혀지는 것)으로 가족에게 알려졌는데 그것을 극복하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은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성소수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떳떳하게 밝힌 채 가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 동성애 사이트만 들

어가 보아도 개개인의 성소수자들이 소소한 바쁨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의 고통과 눈물, 심리적인 불안감들을 해소하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uicide research에 의하면 자살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의료인, 상담가들에 의한 상담보다 가족들의 지지였고, 그들을 심각한 자살에 노출시키는 것 또한 가족이었다. 성소수자들에게 가족구성원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성소수자를 둔 가족의 경우도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동성애라면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성소수자라고 한다면 맑은 하늘에 천둥번개가 치는 것과 같은 감정을 가질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아예 외면을 해버리거나, 폭력 폭언이 오가기도 하며 정신과 진료를 강요하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의 감시까지 행하기도 한다. 2002년 상담을 의뢰한 한 레즈비언 커플은 아버지의 감시로 결국 미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2003년 동성애자인권연대 회원이자 결국 자신의 생을 사무실에서 마

감해야 했던 윤현석군은 아버지의 강요로 2개월 간 의미 없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일부의 가족은 자신이 겪은 충격을 나눌 사람들이 없어 상담을 의뢰한다. 대개 ‘치료가 가능하지 않느냐’며 반문하거나 ‘나의 책임은 아닐까?’ 하며 자괴감에 빠진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어 한다. 2005년 3월 아들이 게이이자 HIV감염인이라며 상담을 의뢰한 어머니는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동의를 쉽게 할 수 없었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식사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며 결국 눈물을 보이셨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동성애’라는 말조차 쉽게 꺼낼 수 없는 벽이 존재한다.

물론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두었다고 해서 부끄러워 할 일도, 폭력이 오고 갈 일도 아니고 자신의 책임으로 여길 일도 이로 인해 자식-부모간의 관계를 끊을 일도 전혀 아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규정한 가족의 책임과 의무로 성소수자를 둔 가족들은 무책임과 무능을 탓하며 고통받고 있다.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심리적인 불안감과 여러 위험요인

(Risk Factor)에 노출되고 있으며 심지어 ‘내가 왜 성소수자가 되었는가?’라는 의구심으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매고 있다. 그 벽을 만든 것은 가족도 개인도 아닌 이 사회체제다. 가족의 책임으로 생각하게끔 하고 반 성소수자 교육과 정책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조차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성소수자를 둔 가족들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가족상담!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논의나 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근원이 ‘반동성애적인 사회 환경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사회체제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성소수자를 둔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가 양성 및 지지 프로그램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LGBT paper**

가족 상담 사례

정숙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요 몇 달 한 어머니와 계속 상담중이다. 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인으로서의 불안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생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셨다. 근데 이 어머니의 근심은 아들의 정체성을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상담내용이 자연스레 그 분의 가족과 소소한 가정사의 이야기들이다. 전화기 뒤로 자신을 숨긴 채 고통스런 넋두리를 늘어놓는 이 어머니를 볼 때 상담자의 가장 큰 미덕은 내담자의 고통을 들어주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비록 내담자의 실제 고통의 무게는 줄지 않지만 부피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라고 스스로 침묵하며 듣는다.

그런 나에게 가끔 이분은 무겁고 어두운 목소리로 나에게 질문한다. “사람은 정말 변화하나요?” 난 이 질문에 정말 침묵할 뿐이다.

이 말을 하는 내담자들은 정말 사람이 변화하는지 알고 싶은 게 아니고 그저 그 자리에 가만있고 싶을 뿐이라서, 좀 더 자신에게 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아들이 사회와 사랑에 상처받고 있을 때 그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런 중심에 놓이게 된다.

이제 와서 보면 남겨진 것은 우리상담자들이다. 그 아들이 다시 가족을 만나서 거절당한 채 슬슬히 걸어 나오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LGBT paper**

2월 25일 인도대사관 앞에선

호제 _ HIV/AIDS인권모임 나누리+(aidsmovie.org) 대표



상황 설명

인도는 WTO회원국으로서의 요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에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화를 포함하고,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의 요건보다 엄격한 인도특허법을 공포했다. 이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을 사람은 전 세계 환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백혈병을 치료한다는 기적의 약 글리벡이 '환자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글리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노바티스는 한달에 300만 원 이상의 약값을 요구했고, 시판한지 1년도 되기 전에 글리벡 개발비용 전체를 회수했다. 인도의 제약사는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1/20도 안되는 가격으로 공급했다. 그러자 노바티스는 물질특허 도입 전단계로 독점판매권을 요구하여 인도 제약사가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글리벡을 사먹을 수 없는 한국의 백혈병환자는 인도의 물질특허도입으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

글리벡 문제는 백혈병 환자에게 생긴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자본이 특허를 수단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물질특허를 도입하는 인도특허법에 따라 글리벡과 같은 일이 전세계 에이

즈, 백혈병, 심혈관계 질병을 앓고 있는 수 천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수천만 명의 에이즈환자들이 몇몇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권으로 인해 자신의 생계비보다 몇 배 혹은 몇 십 배 비싼 약값을 지불할 수 없어 죽어간다. 전 세계 4000만 명의 HIV/AIDS환자들 중 에이즈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는 600만 명이다. 이들 중 오직 44만 명만이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560만 명의 에이즈 환자는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환자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2~15가지 에이즈 치료제는 대부분 90년대 중후반이후에 시판되었다. 특히 95년에 삼제병용요법(각테일 요법)을 시작하게 되면서 에이즈치료제의 사용은 큰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에이즈치료제의 생산과 사용은 우연히도 95년 WTO출범시기와 유사하다. 즉, 대부분의 에이즈치료제는 WTO, TRIPS협정에 따라 특허가 있고, 초국적 제약사의 독점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만들어서 공급해왔다. 인도는 현재 약 200여 국가에 싼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고 있다. 인도가 2000년에 에이즈치료제 공급을 시작했을 때의 효과는 특히 저개발국에서 엄청났다. 인도는 의약품을 초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보다 몇 배 싸게 공급했을 뿐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도 특허법 개정에 저항하는 국제적 연대 투쟁이 제기되어 왔다. 04년 하반기부터 ACT Up Paris와 인도 활동가들은 인도 전역에서, 파리주재 인도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여 왔고 05년 2월26일에 인도 특허법 개정에 반대 하는 국제 공동 투쟁을하기로 결정 하여 한국에서는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주최 하에 2월25일에 많은 시민사회단체, 감염인 단체 등 이 연대하여 한남동 소재에 있는 인도 대사관 앞에서 특허법 개정에 항의 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었다.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물질특허제도를 포함하는 인도특허법에 따르면 1995년 이후에 승인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카피 약을 만들 수 없다.

인도 특허법 개정으로 카피 약 생산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카피약을 통해 치료를 받아 오던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빈국 국가의 환자 들은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심각한 생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에이즈는 약만 제대로 먹으면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 가난한 나라들이 그나마 카피 약을 통해 치료를 받아 왔 던 게 끊긴다면 에이즈는 더 확산이 될 것이며 전 세계 공공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나누리+는 인도 특허법 개정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과 항의 서한을 인도 대사관에 전달하였고 인도 대사관 측은 인도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나누리+ 향후 국제 연대 서명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LGBT paper

다양한 운동이 역동하는 5차 세계사회포럼에 다녀오다!

이경 _ 동성애자인권연대 조직담당



동인련 활동가가 참가하는 세계 사회포럼은 제작년 3차 세계사회포럼 (포르투알레그레) 이후 작년의 뭉바이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이다. 몇 가지 것들이 떠나기 전부터 나를 설레이게 했다. 내가 가게 되는 브라질은 2년 전 좌파정당인 PT(노동자당)의 물라를 대통령에 당선시킨 나라이며, 라틴아메리카는 그야말로 반란과 봉기로 들쭉이는 대륙이 아닌가.

그 유명한 체 게바라와 혁명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며, 거대한 대륙이 제공하는 야생의 스펙터클한 풍경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들뜨게 했던 것은 한낱 한자리에 세계의 좌파들이 모여 행진하고 논쟁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그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생동감 넘치며,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의욕적으로 시작된 40시간의 비행은 중간경유지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하여, 2박3일만에 포르투알레그레에 도착하니 온몸이 부서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첫날 개막행진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다. 20만 명의 각국 참가자들과 남미의 청년들이 한데 뒤섞여 거리를 꽉 메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무지개깃발은 언제나 눈에 띈다. 나는 몇몇의 동성애자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놀

랍게도 그들은 제작년 세계사회포럼 때 동인련에서 온 활동가를 기억하고 있어서 머나먼 아시아에서 온 레즈비언 동지들을 매우 환대해주었다.

여기저기서 무지개깃발과 포르투갈어로 쓰여진 동성애자단체의 배너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동성애자 대열의 규모는 한국에 비하면 매우 큰 편이었다.이색적인 것은 브라질의 PT, PSTU, P-SOL 등의 좌파정당에 모두 그룹화된 동성애자 지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보며 한국의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도 정치적인 동성애자들의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번 행진에서도 이들은 대열의 일부가 되어 당당히 행진했다. 포르투알레그레에 기반을 둔 'NUANCES'라는 동성애자 단체는 이 행진에 백 명 가까이 되는 단체회원들을 참가시켰다. 이들은 이번 세계사회포럼에서 두 가지 주제로 워크숍을 연다고 했다. 하나는 동성애자들의 신문, 저널리즘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호모포비아와 동성애자차별에 맞선 사회정의운동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이 내는 신문에서 이들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와도 공통점이 많았다. 이들은 직장에서의 차별당하는 동성애자들을 방어하는 활동도 하고, 부시와 네오콘들을 비판하는 반전운동에 참여하기도 하며 보수기독교를 비판하고 언론

의 호모포비아적 보도행태를 규탄하는 대중행동을 벌이고 있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와 같이 대중적 저항을 운동으로 조직하고 있는 동성애자 단체가 있다!!

세계사회포럼의 일정이 시작되었다. 매일매일 서너개의 워크숍에 참가하고 남는 시간은 내가 참가한 아래로부터 세계화참가단과 함께 3.20국제반전행동을 알리는 리플렛을 배포하거나 가관을 벌였다. 나는 동성애자로서 국제적인 운동의 일부이자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일부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이러한 활동들에 참가했다. 거리에서 종종 만난 남미의 동성애자들 또한 열정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눈으로 국제연대와 운동의 만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내가 들었던 자율주의 논쟁에 관련한 워크숍은 나같이 정체성운동, 동성애자운동 안에 있는 활동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심어주었다.

나는 시간을 내어 다른 색선에 있는 동성애자 또는 AIDS관련워크숍을 들으려갔다. 하지만 이번 WSF조직위원회가 부문별로 장소를 갈기갈기 찢어 다양한 부문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논쟁하고 소통하기 힘든 구조로 행사장을 만들면서 나는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내가 참가했던 워크숍은 South-South Dialogue(남반구 대화)라는 남반

구 동성애자단체들의 연합이 주최한 것이었는데, 이곳에는 약 100여 명의 성소수자들이 몰려들었다. 참가자들은 저마다 독특한 무지개상징을 몸에 달고 온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사전행사로 트랜스젠더 다큐멘터리가 상영되었는데 상영이 '끝난 후 청중들에게 인사하는 트랜스젠더들을 보며 그들의 쉽지 않았던 인생여정에 파스한 박수를 보냈다. 이어서 서로의 운동의 상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또한 영어로도 제대로 통역이 안 되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매우 감동적인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동성애자는 모든 억압받는 이들과 함께 연대하자!! 내일 폐막행진에 참가해서 우리도 운동의 일부가 되자!! 함께 구호를 외치자!!' 등의 지지할만한 발언을 했다.

브라질에서 나는 수많은 감동의 순간을 직접 경험했다. 두 눈으로 직접 빈곤과 부가 확연히 보이는 남미를 보았고, 꿈틀거리며 곧 폭발할 것 같은 남미 청년들의 진지한 두 눈을 마주했다. 무엇보다 짧은 여정의 가장 강렬한 의미는,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도 세계의 우리는 모두 하나이고 단결할 수 있으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연대의 참모습을 깊이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LGBT paper



연재 인권운동과 나 연아 _ 동성애자인권연대 활동가

글에 앞서 지난 3월 초에 있었던 다함께 새내기 강연회에서 어떤 발제자 분이 말씀하신 것이 떠오른다. 지난해 뭄바이 세계 사회 포럼에 참가했던 그녀는 인도 여성 운동가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당신의 나라에는 페미니스트가 있습니까?” 질문을 받은 여자 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성 해방 운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 나는 동성애 해방 운동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저 나의 성 지향성의 정당함을 이야기 했고, 부당한 차별과 억압을 받는 것에 반대했다. 그것은 동지들에게는 동성애 해방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었다.

인도에서 여성 해방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나 나나 우리가 하는 일의 다른 이름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운동이란 단어의 정의는 무엇이라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운동을 시작했던 내가 생각한다. 추운 겨울날 한겨레신문사 앞 규탄집회에 참가했던 난. 조금은 어안이 병병했다.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무심하게 지나가던 한겨레 기자들을 보며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대 쥐어박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기도 했다.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것이 내 운동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물론 그것이 나는 동성애 해방운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의 일부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했을 뿐.

그 후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고 나는 동성애 해방운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운동이란 내가 생각하기에 단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다. 잘못 되었다는 생각. 바꿀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바꾸기 위한 노력에서 나오는 열정. 단순한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탱 해주는 힘이 된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동성애자가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이 오려면 우리는 많은 투쟁을 해야 한다. 그 투쟁이 성공하는 그 날까지 단순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임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성공할 것이라 나는 믿는다.

동성애자인권연대를 후원해 주십시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당신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후원으로 힘있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정적인 단체의 운영은 필수입니다. 그동안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활동가들은 자비를 털어 단체 재정에 보태고 직장 학교생활의 시간을 쪼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가들의 헌신성에만 의존해서는 활동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동인련은 활동가들만이 활동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한 억압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단체입니다.

장기적인 후원은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은 동성애자들의 인권향상에 소중히 쓰일 것입니다.

>> 정기, 비정기후원 : 매월 1구좌 (10,000원) 이상을 정기, 비정기적으로 후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042601-04-000151 예금주 : 정올(동인련)

물품 후원을 기다립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동성애자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사무기기들과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본적인 사무기기들과 물품들이 많이 부족하고 낡은 상태입니다. 컴퓨터, 팩스 등 사무제품, 책상, 의자 등 사무제품 등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집이나 학교 사무실에서 쓰지 않거나 재활용할 수 있으나 버리는 물품과 사무기기를 기증해 주십시오.

>> 물품후원 문의 : 02_778_9982, lgbtpride@empal.com

동성애자인권연대

10대 원칙

-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된 모든 성 소수자들의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현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성 소수자들 내부에서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성적 지향성에 의한 차별을 비롯한 계급적, 계층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커뮤니티의 조직과 유지에 기여한다.
- 우리는 다양한 동성애자 문화의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 노동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 탄압, 소외된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 우리는 동성애자 인권단체간의 연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성 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